

곡성 귀농·귀촌 인구 722가구 884명

군 실태조사...3년새 33명 늘어

10명 중 5명 "거주지역 만족"

88.6% "타 지역 이주계획 없다"

곡성에서 살기 위해 새로 들어온 인구가 3년 전보다 33명 늘어난 884명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5명 이상은 거주지역에 만족했으며, 만족한 이유는 자연환경 및 경관이 68.6%로 가장 높았다.

곡성군이 최근 3년간(2021~2023년) 곡성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 가구 내 가구주와 19세 이상 주민 8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곡성군 귀농·귀촌실태조사(조사기간 6월12일~7월1일)' 결과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곡성군 귀농·귀촌실태조사'는 지난 2018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돼 이번이 3회 차이며, 전입·주거·사회적 관계·행정정책·개인가구·귀농 6개 부문(78개 세부항목)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귀촌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 중 곡성군으로 이주한 뒤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이며, 귀농은 귀촌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조사 결과 곡성으로 귀농·귀촌한 주민은 3년 전(662가구 851명)보다 주민 수가 33명(3.9%) 증가한 총 722가구에 88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귀촌 인구는 575명(477가구), 귀농은 309명(245가구)이며, 성별로는 남자 528명·여자 356명이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38.6%로 가장 많고, 50대(24.5%), 70세 이상(12.2%), 40대(10.8%) 순이었다. 거주 권역별로는 곡성권(곡성읍·오곡면·삼기면·고달면) 355명, 옥과권(옥과면·입면·겸면·오산면) 298명, 석곡권(석곡면·목사동면·죽곡면) 231명으로 나타났다.

또 전반적인 귀농·귀촌 생활에 대해 33.3%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9.5%가 '불만족'을 표했다.

거주지역에 대해서는 56.2%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자연환경 및 경관이 아름답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68.6%로 가장 높았다.

귀농·귀촌 지역으로 곡성군을 선택한 이유는 '고향이어서' 30.8%, '지인이 살고 있어' 29.3%, '환경이 좋아서' 20.9%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귀농·귀촌 주민 10명 중 9명에 육박하는 88.6%가 현재 거주지에서 타지역으로 이주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으며, 11.4%가 이주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귀농·귀촌 정착단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53.5%가 '없다'고 답했으며, 의료·복지 등 생활환경 문제(13.2%)와 상담기회 부족(8.3%)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귀농·귀촌 정보제공'이 32%로 가장 많았으며, '일자리 정보(17.9%)'·주택구입·임대자금 지원(16.8%) 순으로 집계됐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귀농·귀촌 가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의 밑거름이 됐으며, 특히 곡성군의 인구 유입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2@kwangju.co.kr



고흥군수협, '희망 나눔 캠페인' 1억원 쾌척

고흥군은 지난 18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성금 기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고흥군수협 이흥재 조합장, (사)한국여성기업인연합회 고흥군수협분회 이희정 회장,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동국 사무처장 등 20명이 참석했다.

고흥군 수산업협동조합과 (사)한국여성기업인연합회 고흥군수협분회는 각각 1억원과 1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으며, 지난해 '고흥 나눔리더 1호'에 가입한 공영민 군수는 세 번째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리더로서의 행보를 이어갔다.

이흥재 조합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고

흥군수협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지역사회에 소외계층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고흥군수협에 감사드립니다"며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지역 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수협은 2017년부터 매년 1억원을 기탁하고, 이웃돕기성금 5억원과 고흥군 교육발전기금 2억원을 기부하며 지역 내 소외계층 지원과 고흥군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500년 고목 숲' 광양 유당공원에서 '겨울사색' 즐기세요

볼거리 많아 겨울 여행지 추천

여름철 울창한 숲을 이뤘던 500년생 천연기념물 고목들이 정성처럼 서 있는 광양 유당공원이 겨울 사색하기 좋은 곳으로 떠오르고 있다. 마치 객들은 떠나고 주인만이 남은 흥겨운 잔치의 뒤 끝처럼 적막감이 감도는 곳에서 나만의 사색의 시간을 즐겨볼 수 있다. 500년 굵은 겨울 나무의 전하는 인생의 덧없음과 불완전함에 사색의 깊이는 더해가는 듯하다.

광양시가 유당공원을 특별한 겨울 여행지로 추천하고 있다. 공원에 500년 나이테를 새긴 이팝나무·수양버들·푸조나무가 시간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있는 나뭇잎으로 꽃피어 서 있다.

유당공원은 1547년 박세후 광양 현감이 면바다에서 읍성이 보이지 않도록 조성한 보안림으로 땅의 기운을 채우는 비보림이자 해풍의 피해를 막는 방풍림이었다.

수 백년의 세월을 담고 있는 공원 내 광양읍수들은 아름다운 수형, 군사전략 및 방풍림에 대한 지혜 등 역사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그 옆에는 인물 및 역사적 사건 등을 새긴 16



500년생 천연기념물 고목 수 십 그루가 숲을 이루고 있는 유당공원.

기의 비석이 묵묵히 서 있다. 그중 2기 앞에는 친일 단죄문이 세워져 엄중한 역사의 책임을 묻고 있다.

또 유당공원은 동학농민운동 지도자 김인배 처형사건, 여순사건, 한국전쟁 등 격변과 혼동의 역사 현상이었지만 지금은 아담한 연못과 어우러져 그윽한 풍취를 자아내고 있다.

그 옆에는 인물 및 역사적 사건 등을 새긴 16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와 시간이 흐를수록 빛을 발하는 공간에 대해 새롭고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유당공원은 뽀뽀 도시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비움과 여백이 주는 편안함을 일깨우고 시간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공간이 갖는 본질적인 아름다움에 집중하게 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시, 온실가스 감축률 '전국 1위' ...장관상

여수시가 환경부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2023년 운영 성과보고회'에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감축률을 달성하며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환경부는 지난 17일 해당 보고회를 통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참여기관 중 이행 성과가

우수한 기관을 포상하고, 우수사례와 최신 탄소중립 정책을 공유했다.

여수시는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률 부문'에서 목표치인 36%(2,667tCO2eq)를 크게 상회하는 61%(4,485tCO2eq) 감축률을 달성했다.

특히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자동차) 운

영 ▲신재생에너지 시설 702개소 설치 ▲무공해차 782대 보급 ▲기후위기 취약계층 쿨루프 26곳 설치 ▲분리별 온실가스 배출시설 점검 ▲개인 냉난방기 사용 자제 등에서 좋은 성과를 올렸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하겠다는 노력이 빛을 발해 기쁘다"며 "저탄소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노관규(왼쪽 여섯번째) 순천시장이 지난 18일 열린 순천 관광의 날 행사에서 관광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순천시 제공>

순천 관광업계 글로벌 관광지 도약 다짐

100여명 참석 '관광의 날' 행사

"가족과 함께 가고 싶은 도시" 순천을 위해 뛰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순천시가 지난 18일 생태비즈니스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순천시 관광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순천 관광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순천 관광 발전을 위해 헌신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관광업계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문화관광해설사·정촌여행길잡이·숙박업 관계자·관광택시 기사 등 다양한 관광 종사자가 참석했다.

올해 순천은 관광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며 전국을 넘어 글로벌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전 세계 디지털 여행 플랫폼 '부킹닷컴'이 발표한 '올여름, 가족과 함께 가고 싶은 여행지 1위'를 차지하며 주목받았으며, 트렌드 랭킹 서비스 '랭키파이'에서는 20대가 여행하고 싶은 도시 1위로 선정됐다. 또한 순천만국가정원은 지난해 에버랜드를 제치고 입장객 수 전국 1위 관광지로 등극하며 그 가치를 입증했다.

이날 행사는 순천 관광의 성과를 담은 '2024 순천관광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으로 시작해, 관광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 19명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진 네트워킹 행사에서는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내년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과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함께하는 100년농협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을 로 지 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정)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유 덕 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지 동 차 지 점 062)385-4977~8	애 나 로 마 트 동 립 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